

누구의 문학인가

—문화학술장에 출현한 페미니스트 입장과 페미니즘 비평의 향방(向方)

김정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 1 서론: 여성 지식인들의 1980년대와 1990년대
- 2 ‘인식하는 여성’의 출현, 주의자나 민중만큼 문제적인
- 3 ‘총체성’과 ‘강한 객관성’, “대변인”과 “주변인”
- 4 ‘여성문학’의 고비, 1980년대의 심화 관점에서 본
여성 주체들의 1990년대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7587). 2022년 1월 21일에 열린 한국여성문학회 학문후속세대 소모임지원
콜로키움 “90년대가 바라본 여성, 여성들이 바라본 90년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크지 『여성』과 『또 하나의 문화』와 연관된 여성 지식인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었던 여성 주체들이 제기한 여성문학론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페미니즘 비평의 등장과 그 향방을 주목했다. 이들의 시각과 입장이 ‘차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제적 개인’의 감성이 남성중심적인 것을 공박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박완서 논쟁을 중심으로 이들은 ‘충돌’하는 국면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때 추구하는 비평의 ‘문제들’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행위를 하는 여성의 위상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논의 지점이다. 한편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발원한 비평적 실천이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여성』에서 『여성과 사회』로 이어지는 그룹이 리얼리즘을 갱신하는 데에 있어 여성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입지’론을 제기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문화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의심되지 않는 ‘보편성’의 자리를 공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속과 심화는 1980년대 여성 무크지로부터 발원한 페미니즘 비평의 언어가 단절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여성』, 『여성과 사회』, 『또 하나의 문화』, 페미니스트 비평, 총체성, 강한 객관성

1 서론: 여성 지식인들의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탄생 이후 여성 주체가 비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문학 행위 중에서도 가장 늦게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 이러한 질문에 설블리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지식의 생산체제와 문학의 유통구조 속에서 ‘비평’이 지녔던 의미와 위상 그리고 역할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한 질문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비평이라는 ‘과학’과 문학을 둘러싼 생산과 유통의 구조 내지 제도가 젠더화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문하도록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을 성립시키기 위해 여성이 ‘권위’의 목소리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출발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입장론의 필요성을 설파한 하딩(Sandra Harding)은 “여성들에게 결코 단 한 번도 여성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권위의 목소리가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과 지식-사회적으로 합법화된 지식-개념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제기된 질문을 통해 생성된 사회적 지식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간주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하딩의 인식은 문학 혹은 여성문학에 대해 여성 주체가 ‘권위’의 목소리로 존재하지도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문학 혹은 여성문학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을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의 주요 행위자들인 여성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에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조응에 착목해 문화학술장에서 남성지식인들이 지닌 권력을 의식·도전하기 시작했던 국면들, 역사적으로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과 여성문학론이 제기되는 풍경들로부터 출발해 페미니즘 비평의 등장과 그 향방(向方)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소위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된 기존의 ‘문학(성)’을 심문에 부치며, ‘문학(성)’을 다시 쓰기 위한 시도가 1980년대 중반 등장한 ‘또 하나의 문화’ 그룹과 ‘여성(여성사연구회)’ 그룹에 의해서 행해지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두 그룹이 ‘여성운동’과 ‘여성문학’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노출하긴 했지만 이들이 보여준 소통과 공명의 양상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지영은 “또문과 여성 그룹은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지향점을 모색”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² 본고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두 그룹의 공통분모 그리고 대화적 긴장관계가 일어나갔던 생산적 측면 역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샌드라 하딩, 조주현 역,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168쪽.

2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370쪽.

한편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발원한 비평적 실천에 주목해 여성 지식인의 역사적 시간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과했을 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관계는 재사유될 수 있다. “1990년대 문학장이 다시 지식인/남성/작가 중심의 문학주의”³로 재편되는 형국 속에서 1980년대 여성주의 출판문화운동의 ‘주역’들이 19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담론적 생산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1980년대에 전개되었던 담론적 투쟁의 양상과 다른 방향으로 1990년대 ‘주류’ 여성문학 담론이 흘러갔기 때문일 수 있다. 90년대 문학장에서 80년대 여성주의 문학의 성과가 포섭·배제된 양상과 그 조건을 밝히는 일⁴은 물론 중요하지만 ‘1990년대적인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여성문학담론과는 구분되는 논리를 어떻게 1980년대 ‘페미니스트 출판운동’의 주역들이 이론화하고 실천적 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의 여성 지식인들에게 1980년대는 단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막 불기 시작한 페미니즘의 바람을 지속·심화해나가는 데 있어 준거점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된 ‘여성들의 언어 찾기’를 매개하기 위한 여성 지식인들의 주체적 노력을 가시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여성 무크지를 매개로 펼쳐졌던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발원한 문화학술장의 변화를 ‘페미니스트 입장(feminist

3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35쪽.

4 ‘문지’와 ‘창비’로 대표되는 기성의 문학장이 1980년대 무크지 운동의 성과를 ‘단절’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나 여성 작가들의 문학적 성과를 포섭과 배제 등으로 인해 한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지닌 문제성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서영인, 앞의 글, 16쪽.) 또한 1995년에 새롭게 등장한 ‘문학동네’가 ‘여성문학특집’ 기획을 통해 여성문학의 범주와 내용을 제한해온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가은에 따르면 『문학동네』의 1995년 여성문학특집은 문학동네의 비평주체들은 90년대적인 것으로 가치를 부여했던 기표를 통해 여성문학의 흐름을 일별하고 설명했다. ‘여성문학’을 ‘일상’, ‘내면’, ‘모성성’, ‘사인성’, ‘결핍’과 같은 요소들과 결합한 방식은 이들이 여성문학 자체를 새로운 시대의 일면, 즉 90년대적인 것으로 암시했음을 보여준 것임과 동시에 “여성문학의 범주를 기왕의 페미니즘 문학과 구별되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작업”이기도 했다. ;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민족문학사연구』 제7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76-77쪽.

standpoint)’의 등장으로 의미화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입장’의 등장이 또한 문학장으로 그 시야를 좁혀서 볼 때는 여성주의 비평의 탄생과 긴밀히 연관됨을 논증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페미니스트 입장의 기입이 1990년대 들어 곤경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성성’의 고양은 어느 순간 그 정치성을 탈각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여성의 시각을 기입하는 방향으로 리얼리즘을 갱신하고자 했던 시도는 ‘민족문학’이라는 ‘중심’에 통합·포섭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성문학 담론이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이 ‘여성문학’이라는 위치와 자리를 통해 ‘문학적인 것’이라 믿어진 관념들과 이를 둘러싼 제도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남성중심성을 해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 지식인의 실천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곤경과 위협에 빠진 ‘여성문학’을 구제하기 위해 ‘누구의 여성문학인가’를 질문하고 있었던 이들은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작동되기 시작한 여성 지식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었던 주체들이었음 역시 조명해볼 것이다.

2 ‘인식하는 여성’의 출현, 주의자나 민중만큼 문제적인

1984년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체계와 재현체계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평우회’ ‘또 하나의 문화’ 등 다양한 여성문제 관련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재현 체계를 문제삼으며, 여성을 새로운 주체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여성평우회 주최로 1984년 “일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문화 큰잔치’의 주제 강연에서 논자들은 “여성해방운동은 다른 어떤 사회운동보다도 문화운동적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가 역사적 변동을 겪은 것과는 다르게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구조는 아직 한번도 변혁되지 않고 (중략) 오랫동안의 가부장제 문화 유산에 의해서 여성들은 어떤 피지배집단보다도 지배집단의 문화에 의해 철저히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정신적인 예측, 허위적인 자아상을 깨뜨리

는 일이 여성해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⁵ 따라서 ‘여성문화 큰 잔치’의 목적이 “지금까지의 문화가 왜곡시켰던 성적 대상물이나 수동적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불식하고,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강한 여성상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억압과 지배에 도전하는 실천을 통해서 여성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서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라 언급한다.⁶ 이를 위해 실제 행사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사례연구’ 발표⁷, 여성문화로서 민요와 굿에 대한 조명과 연희마당 등이 펼쳐졌다.

이때 ‘여성평우회’의 ‘여성문화 큰 잔치’는 단지 표어로 내세워진 “일하는 여성”의 부각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해서 말하는 여성, 즉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각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체계와 재현체계에 도전하고 있는 여성의 형상이 더 강하게 감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남성중심적 사회가 가장 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했다. 정희진의 표현을 빌자면 “남성 사회가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은 여성이 자기 언어를 갖는 것, 다시 말해 여성이 피해와 가해를 규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식론적 권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인식하는 여성’의 집단적 출현에는 여성의 존재 방식을 누가 규정하는지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무엇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저항의 몸짓은 동인모임 ‘또 하나의 문화’의 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계에 자리잡고 있던 여자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1984년 결성된 ‘또 하

5 이는 또한 ‘여성평우회’의 초기에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가진 여성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중체계론’에 입각한 것이라 해서 이러한 경향의 이론적 입장은 후에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 이중체계론에 대한 공격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 창작과비평사, 1988.

6 「새로운 여성문화의 장을 열며」, 1984년 〈여성문화 큰 잔치〉 주제 강연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동방기획, 2003, 317쪽.)

7 “결혼과 불안한 교관”, “남녀차별의 벽을 뚫기도-콘트롤데이타의 경우”, “버스안내양의 자살”을 주제로 한 사례연구가 발표되었다.

8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편, 교양인, 2018, 207쪽.

나의 문화’ 역시 문화적 주체자로서의 여성을 부각했다. 이때 문화는 새로운 ‘문제들(problematic)’이기도 했는데, 이는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사유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축하고 있었다.⁹ 공론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거나 재현되지 않는 여성문제를 가시화하는 데에 있어 ‘문화’는 유용한 지점들을 불러냈다. 또한 동인들이 말했던 ‘문화’ 개념이 일치하거나 단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의 삶의 현장을 쟁점으로 삼는 데에 유용한 다리가 되어 준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재생산’영역으로 칭해지는 부분들이 ‘문화’나 ‘일상’이라는 말로 포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또문의 경우 무크지라는 활자매체를 통해 대중출판을 피하고 페미니스트 지식을 유통시키며 여성 주체들이 새로운 대안 문화를 매개할 수 있는 창조적 주체가 되는 것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¹⁰

이처럼 새로운 인식과 재현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여성’의 형상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여성관련 여러 모임이 생겨나고 있었던 1980년대 중반 문화학술장에서 확실히 감지된다. 『여성』 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마찬가지이다. 1985년 12월에 창간호가 발간된 『여성』의 경우, ‘허위의식’ ‘이데올로기’ 등 마르크스주의 인식 전통에서 빈번하게 쓰는 용어들을 경유해 여성에 대한 인식체계와 재현 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이후 그 계보가 끊겼던 마르크스주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들의 재등장이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주목된다. 한편 무크지 『여성』을 통해서도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여성’의 형상이 강하게 감지된다. 『여성』은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서 부각하기도 했지만, 무크지 『여성』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한국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

9 이는 일종의 ‘문화론’의 제기이기도 했다. 서구에서도 문화론이 제기되는 풍경은 어떤 대타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문화 연구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스투어트 홀은 ‘경제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유일한 결정 구조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환원적 접근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람시의 후기 저작에 홀은 특히 주목하면서, 그람시가 ‘일방적 결정’이 아닌 ‘세력 관계’의 분석에 근거를 두며 그러한 국면의 발전에서 ‘다양한 계기나 수준’을 분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스투어트 홀, 임영호 편역, 『인종과 종족성 연구에서 그람시의 함의』,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북, 2015, 494-496쪽.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다룬 바 있음;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구보학보』 제 27호, 구보학회, 2021, 213-270쪽.

적 이론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서 이때도 여성의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모두 문화학술장에서 작용하고 있던 남성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과학 지식이 누구의 입장에서 성립되어 온 것인지를 문제삼았던 하딩의 문제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하딩이 보여준 이론적 입장에 대해서 ‘여성사연구회’에서 ‘한국여성연구회’로 이어졌던 그룹은 비판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점¹¹을 고려할 때, ‘페미니스트 입장(feminist standpoint)’이라는 용어로 이들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남성 지식인들의 논의가 보편의 ‘자리’를 차지해온 것에 대한 비판을 ‘여성’그룹과 ‘도문’그룹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며 여성의 입장을 문화학술장에 기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문화학술장에 ‘페미니스트 입장’이 출현한 국면을 조명한다고 했을 때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문학을 두고 벌어진 일들이다. 무크지 출판에 있어 문학이 중요한 기획과 편집 요소로 활용되면서 기존의 ‘문학적인 것’이 지니고 있던 남

11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글에서 ‘여성중심론’과 샌드라 하딩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이뤄진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이전에 이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대두한 미국의 이른바 여성중심비평(gynocritics) 혹은 여성중심적 분석(woman-centered analysis)에 이미 이분법을 해체하면서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일부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물론 80년대에 들어 프랑스 여성해방론에 자극을 받아 활발히 모색되기 시작한 미국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 여성중심론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지만 연결점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중심론이란 지식의 보편성·합리성·객관성 자체가 남성적인 것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해 이와 다른 형태의 여성적 지식을 모색한 흐름을 지칭한다. 이러한 여성중심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 지칭될 수 있는 입장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었다. 그 주된 근거는 “2단계의 입장에 속한다고 할 하딩(Sandra Harding) 같은 논자가 별다른 이론적 갈등 없이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기본논리를 대체로 수용하”는 것에서 찾아지고 있다. ;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992, 49쪽.

성중심성이 다뤄지고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문학’을 둘러싼 소통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문화학술장에 일정한 파장 역시 불러일으키게 된다.

여성 무크지라는 지면을 통해 글을 발표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한국문학이 ‘보편’으로 여기는 ‘문제적 개인’의 감성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과감히 던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비평적 개입은 한국 문학의 ‘정전(canon)’ 목록이 누구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인지를 문제삼으며, 페미니스트 입장을 출현시키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주체들이 ‘문학적인 것’을 규정해온 논리와 감성에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문학이 지니고 있었던 남성중심적 성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비판을 행한 글로 우선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여성』 창간호에 실린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이다. 여성비평가의 부재를 문제상황이자 글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의 필자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문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의 도입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라 파악하고 있었다. 필자들은 “비평은 그 본질로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전제하면서, 문학을 분석·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남성중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등치”되어 왔음을 문제삼는다. 이는 필자들이 볼 때 대부분의 비평가가 남성이었다는 점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느끼는 구체적 억압상황이나, 그 억압상황이 이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직접적 연관을 가진다는 점은 전혀 간파”되지 못했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해방 이후의 한국소설을 일별”해보는 비평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 입장의 채택에 다름 아니었다. 필자들은 특히 ‘민중’범주를 중심으로 쓰여진 남성 지식인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식인 남성의 인식과 감성이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나타냈다. 민중문학을 지향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민중여성의 삶을 다루더라도 “민중여성이 창녀집단으로 안이하게 대표되

12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7쪽.

며 그들의 참된 모습조차 제대로 그려져 있지 못함” 역시 문제삼아진다.¹³ 이는 “지식인 작가의 민중의식의 낭만적 경향”이나 “민중여성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재현이 여성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¹⁴ 이는 소위 민중이라는 인식체계과 민중문학이라는 재현체계 속에서 여성이 다뤄진 방식을 문제삼았던 시도라 할 수 있다.¹⁵

민중문학에서 여성이 다뤄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또 하나의 문화에서도 행해졌는데, 또한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에 실린 글 「현대시에 나타난 성차별언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시인 고정희가 주축이 되었던 소모임 “시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 발표하는 공동 모임”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자 1986년 7월 또한 월례논단에서 발표된 내용이기도 했던 이 글은 특히 한국 현대시 중에서도 소위 민중시에 나타난 성차별적 여성 재현을 문제삼고 있었다. 민중문학에서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은 여성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인식 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재현체계가 재생산되고 있었던 현상을 이들은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처럼 민중·민중문학론에서 여성이 다뤄진 방식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그룹과 ‘또문’그룹은 그 입각점은 물론 달랐지만 타격의 대상과 문제시되는 지점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소통과 공명의 양상 역시 보여줬다. 고정희가 여성문학론이 탄생한 자리를 “민중해방적 세계관에 담긴 또 다른 지배 논리를 비판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에서 찾았던 것은 이러한 공통분모에 주목했기 때문이다.¹⁷

13 위의 글, 8쪽.

14 위의 글, 36쪽.

15 ‘여성적인 것’이 다뤄지는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여성』 1호에 실렸던 이선희의 글 「여성해방관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후천개벽”으로 집약되는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여성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위치시키고 있지만, 김지하의 이러한 여성관과 현실 인식이 관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존하는 적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한다. ; 이선희, 「여성해방관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사상」,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263쪽.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 김정은, 앞의 글, 49-50쪽.

17 고정희,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1990.2, 85쪽.

이 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로 또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기존의 문화논리가 지닌 가부장성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 타격해 나가는 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글들이 공동체적 글쓰기가 주로 이뤄졌다는 점, 또한 여성 주체들이 대안적 주체성을 추구하며 출현할 수 있는 소통공간과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성’관련 매체를 만드는 시도와 소모임 등을 가지며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했다는 점은 ‘남성중심성’을 타격하는 담론적 수행만큼이나 중요했던 문화적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총체성’과 ‘강한 객관성’, “대변인”과 “주변인”

무크지로부터 발원한 여성주의 비평의 언어는 서로 다른 행보를 점차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1988년에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박완서 논쟁이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두 그룹이 ‘여성문학논쟁’을 벌이게 된 것에는 박완서가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학비평의 프레임 속에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다뤄질 수 없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박완서의 문학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평적 프레임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명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그룹은 문제들을 다르게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행위를 하는 여성 주체의 위상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 차이의 발생이야말로 여성문학운동의 ‘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브뤼노 라투르는 대립 역시도 하나의 네트워크(연결)의 양상이라 논의하며 대립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¹⁸ 계파의 발생과 노선의 차이는 페미니즘 지식 생산의 발전과 심화

18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주창자 브뤼노 라투르는 세계에 대한 관계적, 하이브리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라투르는 과학 이론, 방법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법이 정치에 대해서도 핵심적 함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라투르의 관점은 여성 주체들이 함께 모여 문화적 움직임을 만들어나가는 집단성과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중첩·충돌·교차하는 여성 지식인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의 광범위한 저작들에 공통되는 핵심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어

를 촉진한 하나의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여성사연구회’에서 제출한 박완서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비평적 프레임은 여성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위 한국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화를 ‘여성사연구회’가 조직된 이후에 나온 『여성』 2호가 강하게 추구하고 있었다고 할 때 ‘여성사연구회’의 박완서론은 그러한 흐름의 각론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위 이중체계론이라 칭해지는 입장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적 낙인의 경향성이 ‘여성사연구회’ 편집부가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사회경제체제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함이 역설·공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각 시대의 생산양식·경제구조와 그 시대의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현실 간의 내적 관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여성해방이론가에게 과제로 부여되고 있었다.¹⁹

문학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과제는 결국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를 연결하는 관점으로 문학비평을 시도하는 것에 해당했다. 작품 전체의 리얼리즘적 성과는 자본주의적 현실과 관계되면서도 특수한 양태로 나타나는 여성 문제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의 문제였다. ‘박완서론’의 필자들은 이러한 견지 속에서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요하게 비판된 지점은 박완서가 여성문제를 계층과는 무관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점이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작가 박완서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지만, 여성문제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 문제를 자체와 그러한 문제

떠난 존재도 고립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며 다른 존재들과의 수많은(그리고 가변적인) 관계들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다수의 관계는 종종 행위자-연결망이라 불리며, 라투르의 이름과 긴밀히 연관된 이론적 전통인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토대를 이룬다. 행위자-연결망은 인간과 물질적 객체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이며, 모든 것은 행위자-연결망 속에 존재한다” ;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엔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사월의책, 2017, 20-21쪽.

19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 창작사, 1988, 200쪽.

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중체계론자라고 불리는 여성 지식인들을 보다 겨냥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작가가 자신이 지닌 관점의 계층적 한계로 인하여 여성문제 역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었고, 말희의 경우를 통한 바람직한 결혼상의 모색에 실패한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여성문학적 시각이 보완된 결과, 허성씨의 죽음뿐만 아니라 말희의 문제 회피식 외국행까지 일관된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다.²⁰
(강조-인용자)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지니는 시각이 염무웅으로 대표되는 남성 평론가의 시각과 구분되는 것이면서 그보다 더 총체적 시각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필자들은 염무웅²¹이 박완서에 대해 평가한 내용(즉 박완서가 “소시민적 행복의 허위를 예리하게 간파”하지만, “그 허위의 사회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여성문제를 드러내는 시각에도 작용해 올바른 결혼상의 탐색에도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한다. 필자들은 이때 작가가 지닌 계층적 한계로 인해 여성문제 역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었고, 말희의 경우를 통한 바람직한 결혼상의 모색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휘청거리는 오후』에 대한 해석을 더한다. 이러한 자신들의 시각이나 입장이 “여성문학적 시각의 보완”이며, 그 결과로 허성씨의 죽음뿐만 아니라 말희의 문제회피식 외국행까지 일관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시각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시각이나 입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인 문학비평에 해당함을 호소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완서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올바른 재현”이 이뤄져야 한다는 각

20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편, 『여성』 2, 창작사, 1988, 211쪽.

21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제2권 2호, 1977 여름, 213쪽.

도에서 이뤄졌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필자들은 주부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이 이혼을 구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계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능력있는’ 청희는 중산층 가정주부의 이혼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비판한다. 이러한 평가는 필자들에게 “진정한 여성문학”이라는 이상이 존재하며, 여성 작가들이 그러한 “진정한 여성문학”에 해당하는 재현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²² 이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여성문제를 파악하는 시각을 특권화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식인 작가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현실이라는 재현의 주체와 재현 대상 간의 위계를 도입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목소리가 이때까지 ‘권위’의 목소리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과학’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학적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총체적 인식에 해당한다고 말한 여성 지식인들의 시도가 지닌 의의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여성문학적 시각이 민중민족문학을 보완할 수 있는 진정한 ‘총체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성사연구회’의 필자들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언어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재현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보여주며 보편성에 기댄 ‘권위’의 목소리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낮설게 들려주고 있었다면, 조한혜정은 여성의 삶으로부터 출발한 소리를 ‘강한 객관성’으로 의미화하며 여성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한 언어에 ‘입지’를 부여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된 것은 박완서 비평에 대한 메타비평을 통해 한국 문단의 남성중심적 풍토에 대한 비판을 ‘문화비평’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이었다. 조한혜정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시각만큼 중요했던 것은 이 문화비평이라는 방법이었는데, 이때 비평의 초점은 “글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선 자리와 그 역사성”을 드러내는 데 맞춰졌다. 조한혜정에게 한국 문단의 남성중심성과 엘리트주의는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³

22 김경연 외, 앞의 글, 222쪽.

23 조한혜정의 글은 『작가세계』 1991년 봄호에 발표된 글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論』(삼인행, 1991)에 실린 글을 참조했다.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박완서論』, 삼인행, 1991, 129쪽.

주목되는 것은 조한혜정이 ‘남근중심적’ 비평과 ‘남성중심적’ 비평을 구분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남성의 현실이 총체적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비평, 즉 보편을 자처하는 비평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²⁴ ‘남근중심적’ 비평이 여성과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여성혐오’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남성중심적’ 비평의 경우 여성의 경험세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자신의 경험세계가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비평이 된다.

조한혜정은 ‘대중작가로서 박완서’를 조명하면서 박완서의 소설을 ‘비역사적 시각’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이동하의 글²⁵이 이러한 비평의 남성중심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한혜정이 이동하에게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박완서의 소설이 ‘비역사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이는 “공식적, 엘리트적 역사”만이 역사에 해당한다는 믿음 속에서 가할 수 있는 편향된 평가라는 것이 조한혜정의 판단이다. 다른 하나는 박완서의 글쓰는 스타일이 ‘수다스러운 아주머니의 입담’과 같이 느껴져 불편함을 느낀다는 남성 평자의 감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조한혜정은 그러한 불편함이 박완서의 소설을 읽는 주요 독자인 여성 독자들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조한혜정은 박완서의 소설을 평가하는 남성 평자의 인식과 감성이 여성 독자의 인식과 감성과는 상이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조한혜정은 이러한 비평이 자신이 선 자리와 입장을 성찰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님을 비판했다.

“이야기의 생산자가 누구이며 수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남성 지식인들의 책임기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한혜정이 볼 때 박완서는 “전쟁후 혼란의 역사와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를 여성들의 삶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작가이다.²⁶ 이러한 박완서의 통찰력을 지식인 남성 평론가들이 제대

24 위의 글, 130쪽.

25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26 조한혜정, 앞의 글, 150쪽.

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현실이 총체적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 삶 속에 그러한 거대한 자본주의적 음모가 숨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⁷ 이와 같이 조한혜정은 비평적 발화가 누구의 입장에서 행해진 것인지를 분명히 따지며 보편을 자처한 남성의 입장을 특수한 위치로 상대화하며 “지배적 위치에서 살아온 남성들”이 “일상성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권력투쟁들, 끈질긴 개인적 집착과 그로 인한 보수성, 그리고 수시로 시도되고 있는 놀린 자들의 ‘소극적 저항’ 등이 갖는 역사적 힘을 포착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남성중심적 비평의 인식론적 한계를 강조한다.

이와 대비해 그들이 평가절하했던 박완서의 소설이 지니는 인식론적 힘을 부각한다. 박완서가 지닌 주부로서의 체험과 주변적 위치가 박완서를 “새로운 역사가”의 지위로 올려놓는다고 논의한다. 박완서가 하버마스를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하버마스적인 통찰을 주부로 살아온 체험과 시선을 통해 수행했다는 주장을 조한혜정은 펼친다. 이는 주변성이 지닌 힘을 논의하는 것으로, 주변성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경험과 시선에 인식론적 특권을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²⁸ 이는 여성의 체험으로부터 발원하는 인식이 하딩이 말한 ‘강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27 위의 글, 151쪽.

28 조한혜정의 주변성에 대한 논의는 아드너(Ardener) 부부의 여성의 하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조한혜정은 특히 셸리 아드너(S. Ardener)의 ‘대비적 문화의 모델(counterpart model)’을 통해 억압 집단이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성을 지닐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 김정은, 「전망으로서의 여성과 여성 지성의 ‘자리’: 이효재와 조한혜정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38-240쪽.

29 ‘강한 객관성’은 샌드라 하딩이 제기한 개념으로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배집단 내 남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나 별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설들과 실천들을 설명이 필요한 낯선 것으로 만드는 과학적 철학과 직관을 가져오므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개념이다. 성별의 차이가 과학적 인식의 오히려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샌드라 하딩, 앞의 책, 228쪽.) 하딩은 여성들이 생활세계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지닌 장점 역시 논의한다. 생활세계에서 여성들이 이데올로기적 이중성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임무를 맡은 탓에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좀 더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의 삶에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한혜정은 이러한 ‘여성됨’의 차원을 인식론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언술 양식의 차원에서 여성 작가만의 특수한 방법론 역시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한혜정은 박완서의 글쓰기 스타일이 김윤식에 의해 생리적 차원으로서 언급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³⁰ 조한혜정은 여성 작가의 성과를 의식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연’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시각 역시 여성 작가를 폄하하는 시선임을 인지하면서, 박완서 소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술 양식들을 ‘여성적 방법론’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박완서가 ‘사실묘사’를 탁월하게 해내는 작가라는 데 생각을 모아 보자. 많은 남성들에게 그 사실묘사는 ‘한심스럽고 답답한 소소한 이야기’의 반복으로 읽힐 수 있는 반면에 여성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재촉으로 읽힐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글쓰기의 정치성과 글읽기의 당파성을 보게 된다. 박완서는 사실과 녀살, 익살과 엄살, 달래고 꾸짖음, 묘사와 설교라는 갖가지 방법으로 여성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똑똑한 이모가 되어, 달래는 언니가 되어, 꾸짖는 엄마가 되어 조용히 성찰한 눈길을 보내는 친구가 되어 그는 ‘수다’를 떨기보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여자변종’들을 한데 불러 책을 통한 ‘수다’의 장을 열어간다. 또 ‘수다’를 분석

다. (앞의 책, 229쪽.) 하당의 이러한 논의는 조한혜정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주변인으로서 핵심부와 주변부를 왕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하고 비교해볼 기회를 가지며 이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는 문화인류학자와 같은 시선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논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344쪽.)

- 30 “일상적 삶의 감각을 조직하는 힘이 그대로 작품의 구성력으로 전위된다는 점’을 들어 박완서의 또다른 세련성의 근거를 밝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가부장제의 절대절명의 명제’를 수행해가는 여성들, 그리고 일상적 삶을 사는 여성이기에 박완서는 천의무봉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중략) 그러나 김윤식은 박완서의 개인사를 ‘여성됨의 역사’로 연결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박완서 문학이 도달한 경지는 ‘만들어진 것, 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것은 중산층의 삶의 생리적 감수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자신의 표현대로 ‘싱거운 결론’을 내리고 만다.”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158쪽.)

하여 차원 높은 수다거리를 내놓는다. ‘수다’가 공적인 담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작가는 이제 여성들 곁에 있다.³¹ (강조-인용자)

“사설과 녅살, 익살과 엄살, 달램과 꾸짓음, 묘사와 설교” 등의 다양한 언술 양식은 경험 세계를 공유하는 여성 독자들에게 박완서가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글쓰기의 정치성과 글읽기의 당파성”을 오히려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 독자’와 ‘읽기’의 행위성을 고려하는 시각이 일찍이 제출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하다.³² 박완서의 소설을 매개해 이뤄지는 만남들을 통해 여성들의 대화적 읽기 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의 소설이 “책읽기를 좋아하는 ‘여자변종’들을 한 데 불러” 모아 어떤 독서의 행위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한혜정의 분석은 영웅적 ‘저자성’에 기반한 엘리트주의적인 문학론과는 다른 차원으로 여성 주체들의 쓰기와 읽기를 바라보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한혜정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사연구회’ 문학분과가 내놓은 박완서론은 “이론에 따른 모순의 중첩점”만을 중시하면서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한 박완서의 작품을 제대로 읽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조한혜정의 지적에 따르면 “작가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평자들의 강박관념적 책읽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책읽기 역시 앞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한 남성 주체들의 책읽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조한혜정의 인식이었다.

31 위의 글, 162쪽.

32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순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의 스타일과 미학적 실효성의 차원에서 그 적실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문장웹진』, 2017.4.1.,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39778>>, 2022.2.28. 최종검색)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82년생 김지영』과 이를 둘러싼 현상이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광장의 혁신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소재주의를 넘어 책을 매개로 한 작가와 순환 구조가 만나 한국문학 장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감성의 분할을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132-133쪽.) 조한혜정의 논의 역시 이와 비슷한 논리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박완서의 문학을 매개로 “수다’가 공적인 담론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한혜정은 여성 지식인이 지니는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도 성찰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한혜정이 여성해방운동에서 있어 이론가의 위치가 지니는 딜레마를 언급했던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조한혜정은 사회운동론에서 “올바른 이론”이란 “억압당하고 있는 주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그들이 [진실]이라 느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여성이론가가 지식인으로서 “추상적 사고에 몰두하고 남의 경험을 일반화할 여유가 있는” 일종의 혜택 받은 위치와 입장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지 못한 바로 그 점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다수 여성”들과 오히려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는 다수 여성들과 어떻게 가슴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사회 운동과는 다르게 여성 이론가들이 여성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사적 공간으로 뛰어 들 수 있는 것도 이를 대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딜레마에 봉착한 여성 이론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주체들이 침묵을 깨도록 돕는 것, 즉 언어화를 하는 것을 독려하고 그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된다.³³ 이상적인 것은 “모든 억압당한 개인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 개인

33 이러한 지점에서 조한혜정에 의해 대변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의 문화 논리와 전략이 지닌 특이점과 성격 역시 재현의 윤리와 관련해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다양한 신원과 직업을 지닌 여성 주체들의 글을 실었던 『또 하나의 문화』의 기획과 편집 방침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문학사적 맥락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또 하나의 문화』의 문화 논리와 문화 전략은 서발턴이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서발턴이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식인의 재현 책임을 회피했다기보다 서발턴이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고민함으로써 지식인의 재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는 스피박이 푸코와 들뢰즈의 대담 「지식인과 권력: 미셸 푸코와 질 드뢰즈의 대담」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질성과 타자를 가장 훌륭하게 예언하는 지식인”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 즉 서발턴이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이 지닌 제1세계 백인 남성 지식인의 위치를 괄호에 넣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박은 “말하는 서발턴에 대한 복화술은 좌파 지식인들의 상투적 수단이자 밀천”이라 비판하면서, “대항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적 생산이라는 어려운 과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폐제해 버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그린비, 2013, 47-59쪽.)

의 권위를 부여하고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억압의 이론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⁴ 조한혜정은 이를 “여성문화혁명”이라 부르고 있는데 또문의 동인지 기획과정과 대중출판을 통해 또문이 한 역할은 이러한 여성들의 언어화를 독려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자신의 삶에서 출발하는 이론화에 대한 독려가 박완서의 소설 쓰기에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문이 펼친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논리가 여성 작가의 문학행위를 옹호하는 논리로 전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한혜정의 메타비평은 조한혜정 개인의 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를 생산하면서 길러지고 공유된 감각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문화’라는 지대에서 출현한 페미니스트 비평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두 그룹은 여성의 삶을 모두 중시했으나 이를 통해 도달하는 인식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문학작품에 재현된 여성의 삶으로부터 총체적 현실 인식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조한혜정으로부터 대표되는 『또 하나의 문화』의 경우 여성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식이 지닌 ‘강한 객관성’을 강조했다. 한쪽이 여성문제를 언어화하는 것을 객관적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재현의 총체성을 중시하며 충족과 미달의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여성체험에 기반해 여성이 말하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인 스스로 이론가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지지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시도를 통해 매개되는 여성 주체들의 소통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문학행위와 그것을 시도하는 주체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것이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또문이 “시대를 앞서가는 대변인”과 “시대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주변인”을 구분했던 것을 이들의 논의에서 부각되고 있는 글쓰는 여성 주체의 상(像)에 대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차이는 ‘여성대중’의 잠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동반해 모임과 매체가 지니는 성격의 차이와도 관계되는 듯하다. ‘여성사연구회’ 그룹의 경우 “올바른 여성운동을 위

34 조혜정, 「성의 사슬 풀고 자기 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2, 78쪽.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음.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28-229쪽.

한 과학적 이론과 실천”을 모색하는 “여성소장학자” 그리고 “재야의 여성문제 연구자”들이 모였던 연구자·엘리트 중심의 모임이었던 반면, 또 하나의 문화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동인 모임’이었고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신원과 직업을 가진 ‘여성 대중’의 참여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⁶

4 ‘여성문학’의 고비, 1980년대의 심화 관점에서 본 여성 주체들의 1990년대

또문이 페미니즘과 관련한 담론 생산뿐만 아니라 여성 주체들이 페미니즘과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여성 주체들이 문화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기존의 인식체계와 재현체계를 문제삼는 ‘인식하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또문 내부에서 운영되었던 ‘문화비평’ 관련 소모임의 존재 역시 주목해볼 수 있다.

1990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쪽 이어져 온 소모임 ‘영상토론모임’의 구성원들이 쓴 글이 또문의 열 두 번째 동인지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2』에 실려 있다. 필자들은 “읽는 이의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없이 많은 독해본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지닌 위치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 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해석본을 만들어내는 일이 지닌 정치성과 동시에 ‘함께 읽고 쓰는 행위’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³⁷

36 ‘동인 모임’이라는 특이한 조직 형식은 “학생, 직장인, 주부” 등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했다고 조한혜정은 회고한다. (조한혜정·김정은·홍승진, 「애벌레가 고치를 지어 나비가 되어야 할 시간」, 『다시 개벽』 제1호, 2020 겨울, 53-54쪽.) 물론 실제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또 하나의 문화’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인 모임’을 표방한 ‘또 하나의 문화’가 ‘여성 대중’의 참여 역시 유도한 좀 더 개방된 조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37 한설아 외, 「낭만적 결혼의 환상과 위력」,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2』, 또 하나의 문화, 1996, 293-294쪽.

필자들은 영화 「파니 핑크」에서 주인공 파니를 변화시켰던 것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그녀 곁에서 용기를 주고 ‘진정한’ 우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음에 주목한다. “파니는 인종 차별적인 독일 사회에서 흑인이자 게이로 살아가는 오르페오를 돌보며 낭만적 사랑이 아닌 일상적 삶에서 교감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필자들에게 「파니 핑크」는 “남자와의 ‘사랑’과 결혼만을 유일한 선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할 만한 텍스트”이다.³⁸ 필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결혼이 여성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지배적 현실에 대항하면서, 대안 담론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필자들은 문화비평적 작업이 자신들의 삶을 읽어내는 일임과 동시에 지배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대안적 해석본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안적 해석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란 1990년대 또문에서 특히 강조된 일로 “포스트모던한 전략”과 페미니스트적 전망을 연결하는 일의 직접적 실천이기도 했다.

또문은 동인지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 하나의 문화, 1992)를 통해 “포스트모던한 전략”과 페미니즘을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공식화와 관련해 또문 내부에서 어떤 고민이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또문의 1991년 월례논단 개최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1. 1991년 또문의 월례논단 개최 현황

월례논단	강연자	강연 제목	일시
1991년 5월	조혜정	여성주의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	1991년 5월 11일(토) 3시
1991년 6월	고정희	여성주의 리얼리즘과 문체혁명	1991년 6월 8일(토) 3시

38 위의 글, 301쪽.

39 개최현황을 정리하는 데에는 1991년 발행된 또 하나의 문화의 뉴스레터 『동인지회보』를 참고했다.

1991년 7월	김혜순	페미니즘과 여성시	1991년 7월 13일(토) 3시
1991년 9월	김성례	정보 없음	정보 없음
1991년 10월	권택영	정보 없음	정보 없음
1991년 11월	서지문	영미문학에서의 자서전, 자전적 소설의 전통과 특징	정보 없음
1991년 12월	이소희	1인칭 서사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정보 없음

이 중 또문의 뉴스레터 『동인회보』를 통해 그 강연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조한혜정이 1991년 5월의 월례논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한혜정은 당시 문단의 많은 지면이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 할애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쟁이 “여성해방문학”을 고민하는 자신들의 위치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음을 언급한다. 조한혜정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리얼리즘의 인식론적 기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을 추인하면서⁴⁰ “민중, 민족문학권”에 대한 그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밝힌다. 조한혜정은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에 의해 특정하게 정의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리얼리즘을 재전유해 “여성의 억압을 다루는 여성해방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일 수밖에 없으며 이 시대 리얼리즘 문학의 가장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¹

리얼리즘을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재현, 정치적 현실에 접근하려는 예술의 노력, 그 의지적 성향”이라는 포괄적 정의로 이해한다면 여성의 억압을 다루는 여성해방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일 수밖에 없으며 이 시대 리얼리즘 문학의 가장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리얼리즘을 낭만주의

40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과학주의와 헤겔적인 총체주의 철학의 전통, 그리고 절대적인 보편진리를 상정하는 ‘근대적’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하는 혼란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어떤 논자의 지적을 소개하며 이에 동의를 표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리오타르의 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 안지영의 논의 역시 조한혜정이 리얼리즘 담론을 재전유해 ‘여성주의 리얼리즘’론을 제기했다고 본다. ; 안지영, 앞의 글, 63쪽.

에 반발하여 일어나서 자연주의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각기 가치를 친 서구의 한 역사적인 단계에 출현한 고정적 예술표현 방식이며, 특히 그 이데올로기성과 전형성에서 특징을 찾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을 뜻한다면 오히려 여성해방문학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리얼리즘은 총체적 담론, 곧 “나는 이 우주의 자기 통제적인 중심이다. 그 나머지 세계를 타자라고 규정하는 바 그것은 오로지 남성이자 아버지인 나와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는 메시지를 그 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해방문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작업과 공통분모를 갖는 지점은 바로 이 총체성에 대한 회의의 차원에서이며 사실상 여성해방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포스트모던적인 전략을 써왔다. 도저히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억압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주의 작가들은 오래 전부터 기존의 기승전결 구도를 거부해 왔으며,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합했음에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화법을 개발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조적 모순을 찾아내 왔으며, ‘대서사’적 억압에 저항하여 ‘소서사’를 쓰면서 한판에 승부를 겨루는 총격전이 아니라 게릴라 기법으로 지구전을 펴왔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성해방문학인은 상대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버티는 마지막 리얼리스트이자,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는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스트인 셈이다.⁴²

(강조-인용자)

조한혜정은 “민중, 민족 문학권”에 의해 전유된 리얼리즘은 그 자신이 총체적 담론임을 자처해 왔는데, 조한혜정은 이러한 리얼리즘이 가진 성격이 객관성과 과학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상을 억압했다는 점에서 남성적인 것이라 규정한다. 리얼리즘의 총체적 담론에는 ‘여성적 글쓰기’의 이론가들이 비판했던 기존의 글쓰기가 지닌 ‘남근로고스중심적(phallogocentric)’ 성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42 조혜정,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주의 문학」, 『동인회보』 제40호, 1991.7.10., 또 하나의 문화, 5쪽.

다. ‘남근로고스중심적 글쓰기’는 세계를 언어적 통제 하에서 지배하는 것이라는 논의를 부분적으로 경유해 조한혜정은 “여성해방문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작업과 공통분모를 갖는 지점은 바로 이 총체성에 대한 회의의 차원”이라 말하며, “여성해방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포스트모던적인 전략을 써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한혜정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리얼리즘 논쟁이 의미없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생산적 절합의 경우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된다.⁴³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접합시키는 입장은 1990년대에 이뤄진 또문의 작업이 지배적 각본을 넘어 새로운 각본 ‘들’을 쓰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대서사’적 억압에 저항하며 ‘소서사’를 쓰면서 한판에 승부를 겨루는 총격전이 아니라 게릴라 비법으로 지구전을 펴”는 포스트모던적 전략은 1990년대의 또문의 작업과도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⁴⁴

주체의 입장과 선 자리를 고민하며 ‘언어적 소외’를 겪는 이들에게 문단 바깥의 페미니스트인 또문이 계속된 관심을 나타내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친화력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맑스주의의 언어를 구사했던 여성 비평가들은 ‘창비’ 진영과 연결되며 여성의 시각을 기입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문이 보여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연결과 ‘절합’에 우려의 시선을 나타내는 이들이기도 했다.⁴⁵

43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403쪽.

44 1990년대의 또문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수많은 소서사 즉 ‘자기 기술지’를 통해 결혼, 성, 사랑에 관한 논의를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썼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이외에도 또문이 청소년, 노인 등 언어적 소외를 겪고 있는 하위 주체에 관한 담론을 1990년대에 계속 만들어나갔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동인지 13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1997), 14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1997), 16호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는 또문의 지속된 ‘탈식민화’의 수행이 가져온 담론적 생산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45 『여성』은 『여성과 사회』로 제호를 바꾸며, 한국여성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지속해나가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논의가 기반하고 있었던 범주인 ‘현실’ ‘반영’ ‘총체성’ ‘객관성’ ‘과학성’ ‘당파성’ ‘계급성’ 등에 의혹과 비판의 시선을 던지고 있었던 포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문화학술장에서 ‘탈근대론’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에 대한 극복이 주요 과제로 그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던 1990년대 중반에도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중반 『창작과 비평』에 실린 김영희와 김양선의 글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회원으로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를 공동집필했던 논자 중 한명이기도 했던 김영희는 90년대 중반 당시 창비의 편집위원이기도 했다. 그는 3년의 시차가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연결짓는 흐름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여 주고 있었다. ‘여성적’인 것과 ‘탈근대’를 연결짓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계급운동을 ‘근대적’ 담론 혹은 ‘구식’ 사회운동으로 위치시키는 일반화에 비판적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희에 따르면 “다기하고 복합적인 면모를 띤 여성해방론(들)을 과감히 일반화하는 것”이야말로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적’인 것과 ‘탈근대’를 연결짓는 이들이 비판하는 ‘거대담론’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탈근대=남성:여성=계급운동:신사회운동’으로 계속 연쇄되고 있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것이며 “여성억압에 대한 인식에서나, ‘생산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나 공히 문제를 낳기 십상”이라는 것이 김영희의 지적이다.⁴⁶ 이에 김영희는 여성해방론을 탈근대와 접합시키는 방식이 아닌 근대에 대한 여성 주체들의 복합적 대응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근대와 여성’의 관계를 재사유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영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삶 자체에 각인된 사회적·역사적 구조와 여성들의 대응”에 주목하면서 박완서, 김인숙,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근대’ 체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⁴⁷

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992, 35-36쪽.

46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 『창작과비평』 제23권 3호, 1995 가을, 70쪽.

47 이 지점에서 비판되는 것은 “여성문제를 ‘포스트모던’한 쪽으로 끌어넣는 논의”뿐만 아니라 리얼리즘 문학을 표방하는 남성 비평가들이 논의이기도 하다. 김인숙의 소설집 『칼날과 사랑』에 대한 임규찬, 신승엽, 채호석의 논의가 비판적으로 언급되는데, 김인숙 소설에 담

이러한 시각과 분석은 1990년대 문단에서 논의되었던 여성문학담론에 비판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양선이 『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 특집호에 발표된 박혜경의 글⁴⁸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아 ‘여성적’인 것과 ‘사적인 것/미시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경향을 문제삼았던 것이 주목된다. 김양선은 “여성성을 옹호하는 여성주의 평자들이” 공/사의 분리에 기초해 전자를 남성적인 것에 후자를 여성적인 것에 곧바로 환치하는 것을 문제삼는다. 이러한 환치는 후자가 “90년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해명하는 데 유효하다는 일종의 가치판단”과 함께 하는 것이다. 김양선은 이러한 공/사의 분리가 “애초에 노동의 성별 분업이라는 자본의 노동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강화된 개념”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논자들”이 “여성들의 내적 갈등을 막연히 여성성의 한 특질로 혹은 존재론적 고민으로 환원”시켜 “사적(가정) 영역을 탈물질화·탈역사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⁴⁹

김영희와 김양선의 논의는 페미니즘과 탈근대에 대한 연결이 담론적 차원에 그칠 뿐이며 근대의 복합적 모순에 직면한 여성의 물질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스스로 접합하거나 접합한 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통찰이었다. 한편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현실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한국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근거를 들어 민족문화와 리얼리즘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여성문학의 ‘입지’를 주장하는 발화를 한다. 가령 김양선은 여성문학적 시각을 통해 “민족문화와 리얼리즘의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성문학이 주로 다루는 “여성의 일상이나 체험”은 사적으로 치

긴 페미니즘적 측면을 지워버리거나(임규찬의 경우) ‘대서사 대 사소사’ 등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는(신승엽, 채호석의 경우) 것이다. 김영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일을 늘상 말하면서도, 여성을 당연히 사적 영역에 규정하는 오랜 습성”이다. ; 위의 글, 74-75쪽.

48 박혜경, 「사인화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제2권 3호, 1995 가을, 20-40쪽.

49 김양선,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 제23권 4호, 1996 겨울, 138-139쪽.

부되기 쉬우나, 실은 “자본의 논리가 가장 내밀하면서도 복합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영역”이기에 “뜻밖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파장의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진전을 예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루어졌다.⁵⁰ 한편 이러한 시각 속에서 이들이 주목하는 90년대 여성작가의 문학적 성과는 ‘여성성’ ‘내면성’ 등과는 전혀 다른 입각점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일례로 한국의 자본주의적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물질적 공간인 가정을 소설의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김인숙, 공선옥의 작품들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여성 현실의 ‘복합성’을 고려하는 비평적 프레임은 ‘여성성’이 탈역사화되고 여성의 현실을 지우는 방식의 비평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던 1990년대 중반의 국면, 즉 여성성의 고양이라는 어느 순간 그 정치성을 탈각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여성연구소’ 문학분과 소속 연구자들이 1999년에 공동으로 집필한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앞에서 살펴본 김영희와 김양선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보다 심화한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90년대 여성문학’ 담론에서 제기된 여성성과 모성성에 대한 논의들이 탈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여성성’을 고양시키는 논의들은 기실 ‘여성성’을 격상시키는 논자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이분법적 구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며, 모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 주체의 경험 배제와 이로 인한 남성중심성”임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여성성이 손쉽게 90년대적인 것으로 치환되거나 ‘모성성’을 중심으로 신비화되곤 할 때 그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남성중심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제기된 여성문학인가를 따져묻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성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던 담론 역시 비판적으로 언급되었다. 주요하게 비판한 지점은 ‘여성적 글쓰기’가 지녔던 본래의 정치성을 소거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성적 글쓰기’는 단순히 미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중심

50 위의 글, 143쪽.

적 가치에 대한 물질적·이데올로기적 비판이며, 여성의 자의식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앤 로잘린드 존스의 논의⁵¹를 추인하면서, 이를 내밀한 육체의 경험의 영역에 한정지어 논의하거나 또는 기교적 특징만으로 이해한 것은 심각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 논의한다.⁵²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문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에서 제출된 김성례의 논의가 비판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김성례는 여성의 언어와 글쓰기가 남성의 그것과 다름을 전제하고, 경험과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여성의 언어와 글쓰기는 그 경험의 ‘진실성’으로 인해 여성 주체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⁵³ 이에 대해서 논자들은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언술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오류”를 보여준다고 비판한다.⁵⁴

하지만 김성례가 여성의 공통분모를 말하는 것은 여성의 동일함을 상정하는 것도 아니며 본질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⁵⁵ 김성례는 여성이 ‘남성지배

51 앤 로잘린드 존스,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몸으로 글쓰기-여성적 글쓰기의 이해를 위하여」,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192쪽.

52 김은하·박숙자·심진경·이정희,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1999, 154쪽.

53 김성례, 「여자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119-120쪽.

54 김은하·박숙자·심진경·이정희, 앞의 글, 153쪽.

55 정희진이 정체성의 정치의 유용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글에서 정체성 정치의 유용성을 지적하기 위해 “정체성의 정치”는 ‘동일성’의 정치가 아니라 ‘동일시’의 정치”라고 했던 말을 상기해 본다면 페미니즘이 지니고 있는 정치성이 여성이 여성에게 동일시하는 것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체성의 정치의 한계와 문제는 “정체성이라는 자각이 ‘머무름’ 때, 즉 정체성을 피해자로 본질화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한다고 했을 때 정희진에게 참조되는 것은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임을 자각하는 이동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논의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다. (정희진, 앞의 글, 212-219쪽.) 이러한 정희진의 논의는 또문이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를 통해 보여준 여성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여성이라는 범주를 본질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데 참조가 된다. 또문에게 있어 ‘여성 글쓰기’는 여성의 동일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장소’임과 동시에 다른 ‘주변성’

언술의 국외자로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타자로서의 주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성이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소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하는 수행적 실천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지 ‘원래의 여성, 원래의 여성 글쓰기’가 존재함을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⁵⁶

김성례는 같은 글에서 리오타르의 ‘소서사’에 대한 논의가 “여성 언어와 언어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역시 논의했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소서사’는 ‘근대적 대서사’와 달리 총체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보편적 합의에 의해 도달하는 하버마스 식의 이상적 언어 공동체의 허구성을 지양한다.⁵⁷ 이러한 리오타르의 논의에 의거해 김성례는 “여성주의 문학 혹은 여성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여성’과 ‘여성 해방’이라는 통합적 명령어로 여성 주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죽이는 예술적 테러리즘”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이견,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도달”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⁸

물론 또문의 김성례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주변성’에 기반한 ‘여성의 글쓰기’ 담론은 조안 스콧이 말했던 페미니즘 자체를 구성하는 역설, “성차를 거부하면서도 성차에 호소해야 하는 역설”에 부딪히는 것이기도 했다.⁵⁹ ‘여성의 글쓰기’가 지니는 의미를 고양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의 시도들은 이러한 곤경과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주의’라는 시비가 따라붙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영현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이는 논자 개인의 오류나 잘못으로 여겨질 수 없는 페미니즘 자체의 역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⁶⁰ 이러한 전략적 발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에 대한 성찰로도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6 김성례, 앞의 글, 124-125쪽.

57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208-211쪽.

58 김성례, 앞의 글, 126쪽.

59 조안 스콧, 공임순 외 역,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사』, 엘피, 2017, 56쪽.

60 소영현,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제23권 3호, 2017 가을, 528쪽.

이는 글쓰기와 지식 생산이 주로 “남성 주체들의 위치”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보편의 자리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담론의 조건’이자 ‘물질적 현실’이었다는 것과 관계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0년대의 또문은 여성됨의 ‘역사성’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언어로 접근하는 경향을 점차 강하게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1999년 또문에서 ‘또문 대학’이라는 이름의 기획 강연 행사를 개최해 근대의 역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했음을 살펴보자.⁶¹ 이때 ‘여성문학’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수 있는 언급이 있었다.

강연자 중 한명이었던 김영옥⁶²은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 글쓰기가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양상에 주목하고 있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백낙청과 박완서의 글쓰기이다. 김영옥은 우선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백낙청을 위시한 남성 지식인들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세계문학”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보편의 자리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었음을 논의한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한 것인데 백낙청이 보편의 ‘자리’에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분단체제론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⁶³

61 ‘또문 대학’ 제1기의 작업은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근대화 과정에 각인된 타자성의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남성 주체들의 위치가 상당히 일의적으로 고정된 채” “제한된 패러다임”에 머문 점을 비판하면서 “근대(성)의 문제를 이론 및 재현의 영역에서 점검해 나가면서 타자화된 여성 경험의 흔적들을 들추어내고 그로써 근대와 여성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페미니즘과 모더니티 서사」를 주제로 1999년 9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린 강연이었다. (김영옥 편, 「머리말」,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1, 5-6쪽.)

62 김영옥은 독일 아헨 대학에서 「타인의 텍스트를 통한 자화상 : 발터 벤야민의 카프카 읽기」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발터 벤야민의 저작을 번역하기도 했다. “독일문학에서 출발해서, 페미니스트 비평가, 여성학자”로 이행을 보여준 여성 지식인이기도 하다. 김영옥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을 2015년 개소해 노년과 질병, 아픈 몸, 돌봄에 대한 이론화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영옥이 행한 지식인의 몸과 언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인 성찰은 2011년에 이뤄진 인터뷰를 참조할 수 있다. 김향·이혜령, 「김영옥: 지식인의 몸과 언어」, 『인터뷰 한국 인문학 지각 변동』, 그린비, 2011, 513-515쪽.

63 그는 분단체제에 걸맞은 ‘계급의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분단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인류의 공동멸망이 예견되는 조짐이 너무도 뚜렷”한 상황 속에서 인류가 겪고

한편 민족문학론을 갱신하고자 주장하는 논자들에게 보이는 세계문학의 위기에 민족문학이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 논리만큼 김영옥에게 문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민족 문학이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까지 끌어안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문학의 이름으로 역사에서 계속 지워지고 폐기 처분된 여성의 경험들과 목소리들. 여성이 민족과 문학과 그리고 물론 민족 문학과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도 곰곰이 질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라 비판된다.⁶⁴ 자신을 중심이자 보편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한 발화라는 것이다.

김영옥은 한국의 남성 지식인은 “세계 문학”의 주체라는 보편의 ‘자리’에 동일시하기 때문에 “포스트식민주의적 성찰이 여전히 “민족주의”로 귀환하게 됨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⁶⁵ 이와 달리 “망각하고 극복해야 할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배우고 닮아야 할 문학과 접촉이 안 되는 게 엄연한 현실”⁶⁶이었다는 박완서의 자기 고백적 성찰은 “식민 종주국 일본과 그 일본 뒤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며 버티고 있는 서구라는 타자를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자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민자적 얼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김영옥은 박완서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이 “존재론적 이민자”이기 때문에 견지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김영옥에게 여성은 “일체의 의미화 과정, 역사 쓰기 과정에서 배제”되어 “이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연결(확장)시키고 있기도 했다. ; 백낙청, 「분단시대의 계급 의식」,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144쪽. ; 「분단시대의 계급의식」은 『동향과 전망』 1991년 가을호에 발표된 글이다.

64 김영옥, 「소수 집단 문학으로서의 여성 문학과 그 정치학」, 김영옥 편, 앞의 책, 228쪽. 백낙청의 민족문학 수정론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임규찬의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임규찬은 민족문학론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운동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데 ‘페미니즘 문학론’과 ‘생태주의 문학론’이 연계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임규찬, 「세계사적 전환기에 민족문학론은 유효한가」, 『창작과비평』 제26권 2호, 1998 여름, 80쪽.

65 위의 글, 236쪽.

66 박완서가 2000년 9월에 열린 서울 국제 문화포럼에서 발표한 글이 인용되고 있다. ;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대산재단, 2000.

민자적 위치, 타자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하지만 여성은 “쉬임 없이 다양한 차이들의 “사이” 속에 있으면서 상이한 정체성들을 구성해내는 사람들”이다. “존재론적 이민자”이기에 여성 작가들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착종과 절합의 얽힘 속에서 좀더 맥락적으로, 지리 정치학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주장이 펼쳐진다.⁶⁷ 여성 주체의 경험과 시선에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기대어 그 입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1999년의 시점의 토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주체의 자리에 선 민족문학이 여성문학을 “균열된 타자의 자리”에 얹혀놓는 것을 비판·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날카로운 인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이 타당한 것이라면, ‘창비’계열과 연결되며 여성문학을 통해 리얼리즘을 갱신하려고 했던 시도와 그것이 미친 영향은 그 의미가 쉽게 분석될 수 없는 난제가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민족문학’이 ‘여성문학’을 끌어안겠다는 남성 주체의 발화가 이뤄지고 있다면, ‘여성문학’의 입지와 자리를 주장했던 주체들에게 이는 운동의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 백낙청의 논의를 ‘여성문학’의 입지와 자리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참고하는 것⁶⁸이 아니라, ‘민족문학’을 갱신하려고 하는 남성 주체들이 ‘여성문학’에 대한 이들의 논의를 참조하게 된 상황에서도 남성 주체들이 보편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난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누구의 ‘여성문학’인가’라는 질문이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67 김영옥, 앞의 글, 234쪽.

68 가령 김영희의 논의에서는 백낙청이 계급 개념의 복합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여성 현실의 ‘복합성’을 인식해나갈 때 참조하자는 언급이 존재한다. (김영희, 앞의 글, 73쪽) 김양선의 논의에서는 “노동운동·여성운동·환경운동 등이 그날그날의 국지적 과제와 근대 극복이라는 원대한 과업을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중간항을 매개로 그 행동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상호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백낙청의 주장이 “노동운동·환경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근대의 극복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여성 현실의 복합성 역시 인식해나가야 하는 여성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김양선, 앞의 글, 141-142쪽) 두 논자에게 참조된 백낙청의 글은 각각 다음과 같다. 백낙청, 「분단시대의 계급의식」,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 백낙청,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제 89호, 1995 가을.

‘여성문학’의 시대라고 말해지는 1990년대에 ‘여성문학’이 역설적으로 처했던 이러한 곤경과 위협은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이 도달했던 지점이기도 했다. ‘민족문학론’과 대화적 긴장관계를 형성해 ‘페미니즘 입장’을 기입하려 했던 여성 주체들은 ‘민족문학’이 ‘여성문학’을 끌어안겠다는 발화에 마주치며 이것이 그동안 펼친 페미니즘 비평 실천들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야 했다. 또한 역시 곤경의 상황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적인 것’과 ‘타자성’을 고양하며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전략을 연결시켰던 또한 그들은 이분법적 구도를 반복한다는 비판과 ‘여성적’인 것과 탈근대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문학’을 협소하게 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과 곤경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들이 여성의 경험과 시선에 입지를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않는 것 같다. ‘여성문학’에 대한 이들의 서로 다른 향방과 세력관계에 의해서 국면마다 늘 새로운 균형이 확보되고 있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립되어 보이는 이들의 지향과 실천은 단지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면서 함께 발전해나갔던 것이자, ‘여성문학’의 입지와 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협업이자 공동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활성화된 여성들의 네트워크와 이에 접속되어 있던 주체들이 수행한 이론적 ‘접합’과 비평적 실천을 주목해서 보면 19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또 하나의 상(像)을 그려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80년대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발원한 논의들이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심화되며 페미니스트 입장을 기입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며 ‘누구의 여성문학인가’를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의 시대를 여성 지식인들은 ‘민족문학’의 고비가 아닌 ‘여성문학’의 고비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의 발간을 주도했던 여성 지식인 주체

들이 비평적 주체로 등장했던 국면에 주목해 페미니즘 비평의 등장과 그 향방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들이 보이고 있었던 노선과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재현체계에 도전하는 ‘인식하는 여성’ 주체의 형상을 강하게 내포하며 여성의 존재 방식을 누가 규정하는지에 대한 저항의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을 논의했다. 이때 특히 문학을 두고 벌어진 일들에 주목했는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제적 개인’의 감성이 남성중심적인 것을 공통적으로 공박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물론 박완서 논쟁을 중심으로 이들의 논의는 ‘충돌’하는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때 추구하는 비평의 ‘문제들’은 『여성』 그룹의 경우 ‘충체성’을 기반으로 했고, 조한혜정으로 대표되는 『또 하나의 문화』 그룹의 경우 ‘강한 객관성’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구하는 여성주의의 다름에서 비롯된 비평의 문제들 차이는 문학행위를 하는 여성의 위상을 다르게 파악하는 것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변인”과 “주변인”이라는 글쓰는 여성 주체의 상(像)이 각각의 경우에 대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으로부터 발원한 여성 지식인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었던 여성 주체들의 비평적 실천이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본 연구는 조명하고자 했다. 여성 지식인의 시간으로 1990년대를 통과했을 때 1980년대에 논의된 것의 지속과 심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에서 『여성과 사회』로 이어지는 그룹이 리얼리즘을 갱신하는 데에 있어 여성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입지’론을 제기하고 있을 때, 또문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의심되지 않는 ‘보편성’의 자리를 공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문학’의 주류화의 경향 속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이 역설적으로 처했던 곤경과 위험을 돌파하는 데에 있어 각각의 그룹이 보여줬던 향방의 차이는 비생산적인 대립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함께 발전해나간 하나의 협업이자 공동작업의 면모 역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화술장에 출현한 페미니스트 입장과 페미니즘 비평의 향방을 주목하는 것은 주류 문학장을 중심으로 역사화되거나 평가된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운동과 1990년대 여성문학담론의 관계를 재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여성 지식인의 역사적 시간으로 통과했을 때 1990년대의 여성 지식인들이 제기하

고 있었던 여성문학담론은 1990년대 문단 안에서 논의된 ‘여성문학’담론이 지녔던 한계를 지적하면서 ‘누구의 여성문학인가’를 질문하는 등 일정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980년대의 페미니즘 출판문화운동로부터 발원한 여성 지식인의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있었던 여성 주체들이 1990년대에 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던 지속과 심화의 작업을 역사화하는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이해하거나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인식과 감성으로만 1990년대 문학사를 쓰는 것을 극복하는 서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⁶⁹

한편으로 ‘보편성’의 자리를 공박했던 여성 주체들의 시도와 노력을 조명하는 것은 순환되는 페미니즘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지금 여기 한국 현실을 점검하는 시선 역시 제공한다. 자신을 ‘정상 시민’이라 여기며 ‘보편성’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는 안티페미니즘적인 선동이 페미니즘을 편향으로 공박하는 흐름은 여성이 목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을 ‘정상의 상태’로 치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여성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에 입지를 제공하려했던 여성 주체들의 시도는 단지 과거의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 주체들이 접속해야 하는 역사적 시간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만들고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은 어느 한 순간에 특정 주체들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편의 자리를 심문하는 질문의 방식이라는 페미니즘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까. 왜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제기된 질문과 인식은 과소대표되는가. ‘누구의 ○○인가’라는 질문, 입장을 문제삼는 질문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69 하지만 1990년에 제기한 이들의 논의가 가령 주류 문학장에서 제기된 여성문학담론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고정희,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1990.2, 82-93쪽.
-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편, 『여성』 2, 창작사, 1988, 201-236쪽.
- 김성례, 「여자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115-137쪽.
- 김양선,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 제23권 4호, 1996 겨울, 136-154쪽.
- 김영옥, 「소수 집단 문학으로서의 여성 문학과 그 정치학」,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1, 209-239쪽.
-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992, 35-79쪽.
-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 『창작과비평』 제23권 3호, 1995 가을, 69-92쪽.
- 김은하·박숙자·심진경·이정희,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1999, 139-161쪽.
- 박혜경, 「사인화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제2권 3호, 1995 가을, 20-40쪽.
-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 창작사, 1988, 174-200쪽.
- 이선희, 「여성해방관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사상」,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256-271쪽.
- 임규찬, 「세계사적 전환기에 민족문학론은 유효한가」, 『창작과비평』 제26권 2호, 1998 여름, 65-94쪽.
-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6-52쪽.
- 조혜정, 「성의 사슬 풀고 자기 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2, 70-81쪽.
- _____,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제3권 1호, 1991 봄.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박완서論』, 삼인행, 1991, 127-178쪽)

한설아 외, 「낭만적 결혼의 환상과 위력」,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2』, 또 하나의 문화, 1996, 293-302쪽.

『동인회보』

단행본

권김현영 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02-236쪽.

김항·이혜령, 『인터뷰 한국 인문학 지각 변동』, 그린비, 2011, 506-533쪽.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134-145쪽.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동방기획, 2003, 317쪽.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344쪽.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171-196쪽.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47-59쪽.

샌드라 하딩, 조주현 역,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167-246쪽.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켈처북, 2015, 494-496쪽.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사월의책, 2017, 20-21쪽.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208-211쪽.

조안 스콧, 공임순 외 역,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사』, 앨피, 2017, 56쪽.

논문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13-270쪽.

_____, 「전망으로서의 여성과 여성 지성의 ‘자리’ : 이효재와 조한혜정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15-247쪽.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쪽.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쪽.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365-404쪽.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민족문학사연구』 제7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61-94쪽.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2쪽.

기타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대산재단, 2000.

백낙청,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제89호, 1995 가을, 8-26쪽.

소영현,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제24권 3호, 2017 가을, 519-539쪽.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제2권 2호, 1977 여름.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문장웹진』, 2017.4.1.,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39778>>, 2022.2.28. 최종검색.

조한혜정·김정은·홍승진, 「에벌레가 고치를 지어 나비가 되어야 할 시간」, 『다시 개벽』 제1호, 2020 겨울, 42-78쪽.

Abstract

Whose Literature? The Trajectory of Feminist Positions and Feminist Criticism in the Cultural and Academic Fields

This study focuses on the emergence and direction of feminist criticism by examining women's literature theory raised by female subjects who were accessing the network of female intellectuals associated with the feminist book-magazines *Women and Alternative Culture*.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ir perspectives and positions, it is true that they both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sensibility of the "problematic individuals" who represent Korean society is male-centered. Of cours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bate surrounding Park Wan-seo, they also went through a period of "confrontation," and the fact that they ha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tatus of the female writer as well as the "problematic" of criticism pursued at this time is also an important topic of discussion in this study.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fact that critical practices originating from the feminist publishing movement continued into the 1990s. When this group, which began with *Women* and transitioned to *Women and Society*, raised the "position" theory that women's literature can contribute to renewing realism, *Alternative Culture* presented a refutation of the place of "universality," which remained unquestioned throughout the 1990s. This continuation and deepening can be said to confirm that the language of feminist criticism, which originated from feminist book-magazines of the 1980s, had not ceased.

Key Words: *Women*, *Women and Society*, *Alternative Culture*, feminist criticism, totality, strong objectivity.

본 논문은 2022년 3월 23일에 접수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